

# 大學教授의 파워

Frederick Rudolph

朴 珍 圭 譯

(本協議會 研究員)

◇ 이 글은 高等教育 전문지인 *Change*(1984년 5·6월호)에 실린 “The ◇  
 ◇ Power of Professors: The Impact of Specialization and Profes- ◇  
 ◇ sionalization on Curriculum”을 옮긴 것이다. 필자는 현재 미국 ◇  
 ◇ Williams College의 명예교수이며, *Change*의 편집인으로 활약하 ◇  
 ◇ 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社會의 分業化와 專門化가 대학 ◇  
 ◇ 커리큘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면서, 大學의 變革을 ◇  
 ◇ 위한 教授의 役割을 강조하고 있다.……………〈編輯者 註〉 ◇

'80년대에 들어오면서 專門職교육(professional education)과 教養學習(liberal learning)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 하여 이런 긴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러한 영향이 가져온 利益이 되는 점과 또한 많은 점은 무엇인가? 아마 이에 대한 해답은 美國 教育의 變遷過程을 살펴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교육의 실제와 목적에 있어서 그 특성과 현재의 양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는 專門職의 歷史—현대사회를 규정짓는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의 성장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다.

## I

美國 教育의 危機에 관한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에 관한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歷史的인 眼目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쇠퇴를 설명하고 개혁을 위한 처방

에만 급급했을 뿐 미국 교육이 어떻게 하여 그리고 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소홀히 해 왔다.

서로 相懸 관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들의 문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 이 위기가 다른 것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더욱 적절하게는 오늘날의 이 위기가 전통적 미국의 형태로 볼 때 무시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역사가들의 단체에서만 失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확고한 信念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와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주어져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수가 없다. 과거로부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

겠는가?

만약 中等學校에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간에 그리고 大學에서 전문적 교육과 교양학습간에 긴장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그러고 왜 이러한 긴장이 전설적이 되지 못했는가? 유익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문제의 要因을 포착하는 데는 한 通路(path)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 교육의 樣相과 特徵 그리고 實際目的을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한 街道(avenue)(아마도 열쇠)는 전문적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전문적이란 중·고등학교의 敎師와 대학의 敎授단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專門職化된 모든 스페셜리스트를 포함한다.

## II

식민지 통치기간중의 미국에는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3종의 전문적—神學(대학교수의 科目으로), 醫學, 法學—만이 존재하였고 이들 중 어느 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분명한 교육적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 첫째, 人文·科學 分野에서 고전학습 과정을 이수한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했으며, 둘째 徒弟學習 과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덜 체계화된 방법으로나마 필수적인 전문적 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훈련을 습득해야만 했다.

물론 영국과 그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전문직은 엄격히 계층화되어 있었고 각 專門職의 頂上—主敎, 의사, 변호사—은 귀족의 자녀에게만 허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한은 세습적인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는 불가능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전문적이 사회 하위계층의 구성원들에게도 개방되었고, 전문직을 社會流動(social mobility)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문직의 문은 넓혀졌지만 그래도 교육 요구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한 전문직에 종사하려면 古典 학습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첫째의 교육 요구조건이었다.

18세기말에 이르러 3개의 主要 宗派—국교회, 조합교회, 장로회—는 교양교육의 이수를 도제수련과정에 들어가거나 신학에 관한 독서를 하기 위한 통행권(passport)으로 요구하였다. 1765년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전문적 학교인 의과학교는 古典敎育을 입학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설립자의 말대로 醫師는 숙인들의 친한 안목을 초월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세기 초반에는 학사 학위의 취득이 전문직에 들어가는 필수조건이라는 전통이 철저히 확립되었던 결과 매사추세츠에 있는 변호사의 90% 이상이 대학 졸업자들이었다.

식민지 시기로부터 1830년대 사이의 대학과 전문직간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示唆點은 미국의 대학들이 人文·과학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교육이 아닌 고상함과 지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해가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되려면 먼저 紳士(gentleman)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신사는 교양학습을 통해 강화된 지역사회의 有志였으며, 도덕적·지적 권위를 지닌, 지역사회를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을 의미하였다.

階層化가 잘 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혹자의 말대로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당시부터 걸잡을 수 없이 불어닥친 平等主義 바람은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집권기에 이르러서는 미국 역사상 해로운 정도로 팽창하였다. 그 즈음에 사무엘 하버(Samuel Haber)의 표현대로 '미국에서 전문직 최악의 상태'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50년간은 강력한 평등주의 운동이 모든 형태의 배타성과 억압 그리고 독점성과 충돌한 시기였다. 교육을 제미로 받지 않은 牧畜者들에 의해서 전도된 감리교인과 침례교인들이 전통적 종파의 교인들을 수적으로 능가하게 되었다. 의학협회와 법률가 단체가 각각 醫師와 변호사의 지망생을 스스로 심사하고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인디애나주 헌법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선량하고 도덕적인 시민은 누구나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專門職에 종사하기 위한 資格條件들의

페지는 리버럴 아트 대학(liberal arts colleges)으로부터 학생과 공공의 지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뉴잉글랜드주에서도 대학생은 수적인 면에서나 전체인구의 비율면에서 감소하게 되었다. 州議會에서조차도 대학은 사회 특권의 중심지 또는 불필요한 지식의 진파소로 비난받게 되었다. 곧 이어서 대학교육을 전혀 받아 보지 않았거나 理解能力에 기초한 전문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목사, 의사, 변호사가 증가되었다. 그 결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理論的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에 치중하여 知的인 내용이 결여되었다. 신사 교육을 이수했다는 확인증인 學士學位를 받은 후에야 전문직으로의 입문이 가능하며, 신사란 사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종래의 전문직종의 특징들은 학위제도와 함께 사라졌다.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명예를 존중하는 文化의 전달자가 아니고 富와 地位만을 좇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이후로 대학은 학습과정에서의 일관성이나 사명에 있어서의 명확성이 다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전문직의 질이 점차로 저하되고 학사학위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고등교육은 그것이 상실한 것에 비견할 정도로 사회와의 능동적인 관계를 떠났으며 1830년 이래 약 50년 동안 守勢的인 입장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고전 학습과정에 충실하려는 전통과 좀더 실용적인 것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대학은 스스로 교과과정에서 약간의 개편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나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학은 知的인 면에서 본질적으로는 부동의 상태였다. 즉 대학은 급격하고 도전적인 變動社會에 버림받아 스스로 갖는 신념과 사회와의 제약을 의미있는 것으로 갱신하려는 어떠한 운동에도 취약한 과거의 포로로 잔존해 있었다.

이어서 일어난 갖가지 형태와 표현의 대학운동은 처음에는 오히려 대학의 생존에 더 큰 위협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학은 知的, 社會的, 경제적 변화의 힘을 스스로 수렴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새로운 종합대학교, 세분화된 대학 그리고 전문적 학교로의 탈바꿈이 가능케 되었다.

### III

미국의 리버럴 아트 대학은 前産業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들 대학의 紳士養成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 시대의 資源 開發 및 평등주의 운동에 보인 不動謔(lack of sympathy),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偏向 등이 고전적 커리큘럼과 미국 초기 대학의 人文主義의 형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종합대학교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副應하여 출현하였다. 즉 지식의 세분화와 세련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현행의 사회 장치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전문가 집단을 훈련하려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혁명의 결과가 바로 미국에서의 대학교(university)의 출현이었다.

종합대학교가 한때 미국 고등교육의 사명을 한정시키며, 한편으로는 미국 초기 대학의 전통적 목적과 교과과정에 충실하려고 했을 정도로 리버럴 아트 대학도 어느 정도는 때때로 직업적 관심에 반응을 보이며 이에 동조했고 아울러 분업화가 驅歌했던 많은 것을 재평가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人文學 研究, 社會批判, 倫理的 關心의 일차적인 중심지로 여기면서(고전적 가치를 일깨우기도 했다. 점차적으로 대학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고, 전문인 기업 관료주의 성장 그리고 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있어서 한 낙오자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친 커리큘럼에 관한 논쟁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전문적 대학 종사자를 포함하여—에 대한 수요와 필요, 그리고 開化되고 책임 있는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이 가졌던 傳統的 目的과 關心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으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후에 설립된 대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영향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대학이 전문직 교육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현장에서 습득될 수 있는 종전의 직업이 새로운 전문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새로운 敎科目에 대한 관심과 산업 질서와의 결탁으로 출현한 응용과학에 대한 수용력을 보임으로써, 대학은 종전의 효용성에 새로운 지식을 더해 이를 한층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대학교는 실제로 기업과 정부관료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학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를 社會流動의 促進者로 자처하게 되었다. 코넬(Ezra Cornell)과 엘리엇(Charles William Eliot)은 모든 교과목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독특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고객(학생)을 대학교—이들의 말대로 능력자 중심의 관료 제도—로 끌어들이었다.

뚜렷한 목적관을 유지하며, 學問的 重要性에 그 우선 순위를 주거나 아니면 고등교육이 한때는 개인의 공명심보다는 사회에 대한 행위에 더 깊은 배려를 하였으며, 각 개인의 職業形成보다는 인류사회 형성에 더욱 큰 흥미를 보여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혼란된 목적과 뒤바뀐 우선 순위와 망각의 분위기 속에서 대학과 대학교가 똑같이 혼란되고 뒤죽박죽되고 잇기 쉬운 교과과정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물론 어떠한 高等教育機關도 지식의 폭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더우기 어느 기관도 당시 미국 사회에서 대변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초연할 수는 없었다. 전례 없는 윤리의 多樣性과 複雜性을 가진 부유한 도시 산업사회의 출현이 합리화와 조화화의 과정 속에서 가능했다. 록펠러(John D. Rockefeller)와 모건(J.P. Morgan)은 이런 새로운 질서의 누구한테도 교습받지 아니한 탁월한 창안자였지만, 형성 과정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나타난 새로운 세계는 이 속에 복잡·거대한 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화된 지식과 전문가 그리고 기술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專門 職種은 갑작스런 팽창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어떤 專門職業이라도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서비스 행위에 대한 대가로 돈과 아울러 사회로부터의 권위와 자율성이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적이라 할 수 없다. 전문가의 권위란 그 전문적에 의해 인정된 일련의 기술과 지식체계에 의해 싸우되며, 또한 전문적이란 자체 규율, 지향적인 윤리 가치체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체감, 그리고 집단 의식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1880년대에 이르러 전

통적 전문적은 오랜 기간의 밀시로부터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독립적으로 유지되었던 專門職業學校는 종합대학교의 한 부속기구로 소속되게 되었으며 전수학교 역시 리버럴 아츠 대학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과학의 권위가 높아짐과 전문가에 대한 시장성에 의해 고무되어 지식의 回生을 꾀하려고 했던 지적인 활력과 엄격성이라는 이득이 있었다.

專門職의 屬性—전문가로서의 확증—은 라슨(Magali Larson)이 보여 주듯이 기업관료주의의 목적이 경제적 능률에 있는 사회에서의 대학교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능률적 통제에 있는 사회에서의 대학교에 의해 촉진되었다. 대학교는 스스로의 關心 領域을 넓히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전문가의 職種을 보증하려고 하였다. 대학은 학부와 대학원 경영과정에 있는 전문가를 대기업에 효과적으로 진출시켰고 실업계와 다른 여러 종류의 사회단체와의 조정으로 학교에 있는 전문가를 지방, 주, 또는 중앙정부에 진출시켰다.

확대된 公共 고등교육의 조직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쉽게 반응하였다. 기업가적인 힘이 전례 없이 풍부해진 천연자원 및 비숙련 노동력과 결합되어 미국 경제는 경쟁 자본주의 시대로부터 기업 자본주의라는 복잡한 시대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 企業資本主義는 전문인의 정책 결정, 응용과학과 기술, 중소기업의 쇠퇴,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서서비스 직종의 증가 및 직업의 분업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고등교육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지배계급에게 자격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기업 자본주의와 기업국가를 동반하는 기회 관료주의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구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은 갑자기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규모가 큰 주립 대학교가 선두에 섰고 작은 사립 대학이 그 뒤를 따랐다. 정규 학습과정에 기술적 효용성이 처음으로 끼어듦에 따라 직업교육과정이 전통적 교양교육과정과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IV

이제는 實用科目으로부터 教養科目의 가치를

구분하던 잘못된 이분법에서 탈피해야 할 것 같다. 교양학습은 직업적 관점에서는 특정화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엄연히 실용성을 띠고 있었다. 피교육자의 태도와 기술은 직업적으로 유용하도록 기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학습이 유용한 것이 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유용한 것 자체가 교양적일 수 있는 요소를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학에 나타난 직업교육 과목, 전문적 커리큘럼, 기술적 실용성을 띤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부터 교양학습을 구별짓는 그 ‘어떤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들 과목은 교양학습의 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

교양과목과 다른 과목과의 차이는 認知技術, 합리적 분석력,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명확성, 표현력, 상상력—등에 대한 배려의 정도에 달려 있었다. 自由敎養學習(liberal course of study)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색, 성찰, 평가, 그리고 자신과 사회에 대한 제평가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어떤 것’이란 전통적 대학에서 흔히 통용되었던 것인데 이들 대학은 “대학을 다녔다”라는 아말감에서 기인된, 분석하며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취향 및 가치에 있어서의 확실한 신뢰성, 그리고 어떤 도덕적 입장과 스타일을 가져야 할 것으로 대학 졸업자들이 인지하게끔 도와 주었다. 결국 위의 것이 바로 리버럴 아츠 대학이 걸러 주었던 그 ‘어떤 것’이었다.

專門職의 屬性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이며, 대학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었다. 敎養學習은 초기의 전문직과 소수의 지배 엘리트 그리고 덜 세속적인 취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결국 교양학습의 결과는 극적인 것—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역동성과 에너지 및 권위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것만큼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절대로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에는 사회윤리 및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경의의 요소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양학습에 관한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교수와 학생간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데 있었다. 세롭게 부상된 현대 미국 대학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오늘날의 대학은 그것을 먹여 살리며 지지해 주는 현대의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 형태를 상당한 정도로 따랐다는 사실이었다. 커리큘럼은 수많은 이유로 인해 고전적 전통에 따르는 일관성과 권위로부터 이탈되었으며, 어떤 이유였건간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는 학생들이 敎育財(educational goods)의 고객과 소비자의 위치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이다. 학생이 이제 더 이상 어린이로 간주되지 않고, 대학이 대학 조직에 걸맞다고 간주되었던 부모의 권위를 포기함에 따라 커리큘럼은 곧바로 시장(상품화 되었으며, 학생은 값싼 물건을 찾아다니는 관광객이 되었다.

敎授의 專門職化와 大學專門家의 증가는 대학간 경쟁에 불을 붙여 결과적으로 대학생활을 회사생활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교수가 되기 위한 경쟁, 學科간의 대항, 量的·數的 成長에 만의 관심, 늘어나는 학과에서 셀 수조차 없이 배출되는 전문가들의 출현,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정복욕과 영토확장주의로 이끌어 학생들을 전문가의 냉담한 희생물과 정복의 대상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그 목적을 위해 職業的 大學 專門家들의 힘이 바로 커리큘럼으로 표현되었다. 간혹 교과목과 교육과정은 학생이 원하고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남의 간섭을 받기를 거부했던 자율적인 대학 전문가 집단이 그 외 다른 것을 가르칠 수도 그리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설되었다. 한 부류의 대학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커리큘럼이 학생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대학은 먼저 학생 고객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어서 新전문분야나 기술분야의 職業志向的인 프로그램과 비필수적인 과정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개설함으로써 이에 학생들이 등록하는 것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대학 전문가 측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커리큘럼을 일단 교수가 거절하면 직업적 대학 전문가는 교수와 학생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대체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위신이 서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커리큘럼의 권위는 빼앗기게 되었다.

이러한 커리큘럼의 變化에 대한 학생들의 反應은 놀라운 것이었다. 학생들은 커리큘럼이 실제로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과외활동과 어느 면에서는 학과 학습을 완전히 압도하는 체육경기 단체와 남·녀 사교단체에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무엇보다도 잘 나타내는 것은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1890년대 하버드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이 수업 연한을 3년으로 단축시키려는 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습과정 때문에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학생들은 단지 재미와 사교성, 그리고 자신의 장래와 성품, 성격 형성에 유리한 경험만을 위해 대학에 다녔다.

직업적 대학 전문가가, 전통적 대학이 주로 다루었던 골치 아픈 윤리 및 가치문제로부터 전환하여 지식적인 내용만을 커리큘럼에 반영하려고 함에 따라 학생들은 그들의 관심을 사교단체와 체육단체로만 돌리게 되었다. 만약 세상에 알려졌다면 난감했을 일의 하나는 홉킨스(Mark Hopkins) 총장의 후임은 철학과의 새로운 전문직교수가 아니라 축구팀 코우치였다. 선택 커리큘럼(elective curriculum)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허용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이 원하거나, 원해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장래의 직업은 학교에서 받는 학습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확고한 친분 관계를 잘 맺고 그들의 앞날을 똑바로 보는 것에 더 좌우된다는 것을 학생들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VI

현재 우리가 처한 상태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길은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목적과 기능의 혼란 속에서 커리큘럼에 압박을 주는 緊

張과 相衡關係에 있는 점들은 쉽게 처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킴벌(Bruce Kimball)이 주장하듯이 실험적인 가치, 개인주의, 사회 의식, 과학적 지식, 비판적 지성,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이 모든 것을 커리큘럼이 가르칠 수 있다고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은 직업과정과 비전문직 과정, 그리고 학부에서의 기술훈련만으로도 실사회에 직업을 얻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할 다른 장치의 기회도 마련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고용자들이 경영이나 공학분야의 전공자들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대학에서의 技術敎育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콜린스(Randall Collins)가 수집·분석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박사학위 취득자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지 않아도 알 것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도 고용인을 가장 능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의 경험뿐이라는 사실을 고용주들은 잘 알고 있다. 다만 경영학 또는 공학이라는 전공을 따지는 이유는 문제의 젊은이가 리버럴 아츠 교육에 의해 오염되거나 자유 분방한 정신에 오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코자 함이다.

대학은 예전처럼 야만과 문명, 깨우침과 무지의 차이점을 사회에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어떤 직업에 경솔하게 발을 들여 놓거나, 공인된 전문직 자격증이나 딸 수 있는 과정을 밟은 학생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교양학습에 관련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는 기술적으로 편협하게 훈련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더우기 현재의 커리큘럼 내용이 많은 학생과 그들의 장래의 고용주한테는 과외활동 기회로부터 오는 이익보다도 더 의미 없게 비쳐지므로 앞으로는 창조적이고도 책임 있는 커리큘럼을 위한 변혁을 시도하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교양적인 내용과 분석적 특색 및 인간의 관심사가, 필요한 직업적 특징들을 유지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담겨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옳은 일인가?

이제 와서 미국의 대학이 기업과 전문직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늦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간의 제휴가 어떻게 고등교육에 意志의 마비와 目的의 혼란을 가져왔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늦지 않은 일이다. 대학의 총장은 과거를 물려받았지만 그들에게 현재를 명확히 규명하며 미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기회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그 귀한 기회 중의 하나가 주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리즈만과 젠크스(David Riesman and C. Jenks)는 설득력 있고 분명한 어조로 大學 革命을 부르짖고 있다. 이런 혁명으로 인해 대학이 미국 생활에서 중추적인 사회제도로 부상하였으며 그 결과 고등교육이 귀족주의로부터 能力者主義의 가치와 형태로 변했으며, 고등교육은 궁극적으로 정치가, 박애주의자, 사업가, 학교의 이사 또는 학생이 아닌 학술직의 수요와 추정에만 반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알게 모르게 교수가 미국 고등교육에 미칠 수 있는 힘, 그러므로 결국은 미국사회와 사회질서에 끼칠 수 있는 힘이란 대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미국교육의 위기에 대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바로 교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교수들은 전문가로서 커리큘럼을 장악했으며, 전문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수행자들에게 미국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능케 하는 자격증까지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교수가 학교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상적인 힘 이외에도 정계와 실업계까지 뻗었던 그들의 권위를 들 수 있다. 政界와 實業界는 대학의 바로 그 교수들에 의해서 자격이 인정된 전문 분업인 또는 전문직의 소유자가 숙련가로서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다.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대학학습 과정이 결정되며, 이들에 의해 기존의 전문직과 새로운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이 부여되며 박사학위의 내용과 대학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대학 졸업생이 分析力과 探究精神에서 빈약하거나 자신의 모국어나 다른 외국어로 분명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歷史와 文化를 알지 못하여 윤리적 확신이 없다면 그 책임은 학교, 대학 총장, 정치가, 또는 일반 국

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 교수에게 있는 것이다. 대학교수에게는 대학 커리큘럼의 대변력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교수는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여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미국 고등교육의 짐이 전적으로 대학 교수에게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보인 무책임성과 무기력 그리고 허약성이 문제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의 교수가 대학에서 적절한 개혁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사회의 투자와 연방정부도 교수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유감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 비판을 가했던 혹평가들이 한결같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빌로 기분좋은 일은 못 된다. 문제 해결방안이 보잘것 없었던 만큼 그들의 비판이 서툴렀다는 것은 아니다. 베비트(I. Babbitt)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을 견지하였으며, 노크(A.J. Nock)는 인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학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렉스너(A. Flexner)는 교양대학을 지배하던 가치가 대학교에 그대로 침투되어 온 것을 심히 불쾌히 여겨, 그는 연구 이외의 모든 기능은 대학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자기 스스로 프린스턴 연구소를 설립하여 자기의 주장을 실행에 옮겼으나 고등교육의 여타 분야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허친스(R.M. Hutchins)는 인본주의 학습의 회생을 고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찾아 보려고 했으며, 마이클 존(A. Meiklejohn)은 교과과정의 내용이 고전으로부터 사회 지식을 담는 것으로 변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반론들은 일단의 문제 제기에만 그쳤고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으며 당대의 그들 동료들은 계속하여 교양교육의 전복을 시도할 수 있었다. 크제는 위의 비판자들이 교수의 권위와 위대한 위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확인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했다.

교수들 사이의 전문적 직업 근성, 더욱 세분화되어지는 분업화, 연구비를 제외한 다른 가르

침과 전문직의 사명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 등이 티버털 아츠 대학이 실제로 교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수많은 교양과목 교수들이 서로 너무나 깊이 분업화 되고 각 영역이 지나치게 과학적인 해석에만 의존하여 학생과 학과목이 인본주의적 관계를 맺게 해 주며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려는 시도는 교수들의 관심과 능력 밖의 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오늘날 人文 教養教育을 받은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불확실성과 학과에 충실하려는 편협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종합적이고 철저한 대학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수는 창조적이고 책임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변혁이라도 시도해야 할 때다. 교수만이 이런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파우어(power)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수들이 이 파우어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



# 學生研究論文制度

金 基 澣  
(啓明大 學生處長)

본 啓明大學校는 基督精神과 대한민국의 教育 理念에 입각하여 學術의 심오한 理論과 광범하고 精微한 응용방법을 教授하고 연구하며, 國家와 社會 및 敎會의 발전에 공헌할 指導者를 養成할 목적으로 1954년 3월 20일 設立되어, 이 設立 基本理念 중의 하나인 學術研究 활동을 활발히 推進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1976년까지는 勉學雰圍氣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學科別로 學生研究論文制度를 실시하여 研究 發表會를 갖게 하였으나 學生들의 自發的인 참여 부진과 논문 수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1976년 3월부터는 이것을 보완하여 學生들의 학구열의 고취와 勉學에 대한 動機誘發 및 우수 學生의 學業實績에 대한 制度的인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學生들에게 研究費를 支給하여 學술논문을 提出하게 하고 있다.

## I. 目 的

학생 學술 연구논문 제도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學生들의 研究意慾을 높이고 研究活動의 實效를 통하여 평소 배우고 익힌 專攻分野의 학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학문의 深奧한 이론과 그 應用方法 및 산 知識을 연구케 하여 재학생들 사이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賦與함으로써 大

學文化的 暢達과 건전한 勉學雰圍氣를 조성시키고,

둘째, 學術情報의 교환을 통하여 學問研究의 深化와 發表力을 함양하며,

셋째, 재학생들에게 경쟁적 學術研究를 통하여 진지한 研究姿勢를 誘導함으로써 能動的인 自律探究의 태도를 育成시킨다.

## II. 方針 및 細部 實施計劃

### 1. 方針

학생 學술 연구논문은 각 單科大學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學術研究를 철저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연구논문 1편당 1명의 指導教授를 委囑하여 지도를 맡게 하고, 지도교수는 원칙상 1편의 논문만을 指導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학생들의 學術活動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교생의 참여를 권장하며, 각 학과별로 1편 이상의 論文을 연구토록 배정하고 각 單科大學別 學술 논문 發表大會에 참가하도록 하여 大會에서 入賞한 論文은 전국 學술 발표대회에 참가하도록 추천한다.

또 優秀論文은 飛獅論集(계명대학교 학도호국단에서 發行하는 학생 學술논문집)에 掲載하여 전교생들이 읽도록 권장하며, 研究者가 4학년 일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卒業論文으로

代置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논문의 研究範圍는 專攻分野 학술연구 과제 또는 國家施策에 관련된 理念的 論題(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農, 水, 海洋, 새마을, 醫, 齒, 藥學, 예술분야)로 한다.

## 2. 細部 推進計劃

單獨論文이나 共同論文(2~3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專攻分野 教授의 推薦을 받아 학생 학술 연구조성비 申請書を 작성하여 당년 3월초에 單科大學 교학과로 제출하면 학생처에서 申請書を 收合하여 學生 學術論文 審議會의 소정심사를 거쳐 당년 3월중에 研究費 支給 대상자를 발표한다.

학생에게는 본교의 學術論文에 대한 諸般 規定을 遵守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난 후, 研究費를 지급하고, 指導教授에게는 指導費를 지급하여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한다.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한 研究者는 연구진행 상태의 中間 報告書를 당년 6월중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생처로 제출한다. 연구 결과 完成된 論文을 계명대학교 論文作成指針에 따라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9월중에 학생처로 제출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그림 1>과 같다.

## 3. 研究費 支給中止 또는 回收

학생 학술 연구논문 研究費는 單獨論文은 140,000원, 共同論文은 20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1次 研究費 支給은 支給 對象者 발표 후 50%, 2次 研究費 支給은 中間 報告書 제출 후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研究者가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못하였을 때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研究費를 지급받았을 때, 또는 研究費를

目的 이외에 사용하였거나, 研究費를 지급받은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研究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判定되었을 시는 研究費 支給을 中止 또는 回收한다.

## 4. 學生學術 研究論文 申請資格

학생 학술 研究論文 申請 資格은 계명대학교 在學生으로 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학칙에 의해 懲戒사실이 없는 학생으로(단,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일지라도 소속대학장의 책임하에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專攻分野 지도교수의 推薦을 받은 학생이어야 한다.

## 5. 研究費 申請論文 選定の 審査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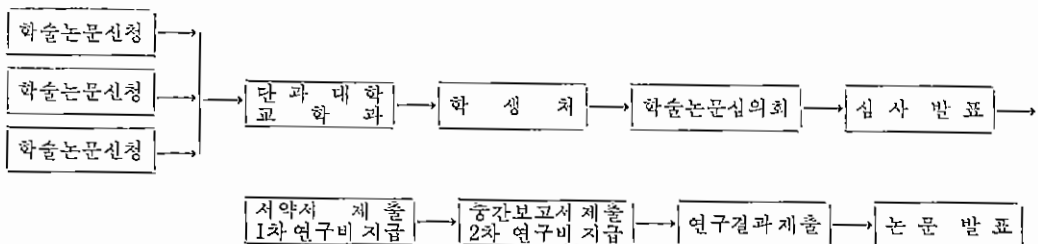
研究費 申請論文을 選定함에 있어서는 명예기수여 학생(평점 4.20 이상) 및 3학년 이상 학생을 優先 選拔하며 학년별 학과별 제적수를 고려하여 안배·선정하고 최소한 申請學科에 대하여 1편 이상의 論文을 配定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研究計劃의 變更

研究費를 支給받은 학생이 研究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연구비 지급대상자 발표 후) 지도교수를 경유, 變更 사유서를 첨부하여 變更申請書를 제출하고 학생 학술논문 심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7. 研究期間

研究期間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論文資料 收集 및 文獻研究를 하도록 하고 방학기간중에 說問調査나 論文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그림 1> 學生研究論文 申請 및 進行過程

### Ⅲ. 論文發表 및 施賞

研究費를 지급받고 제출한 論文은 당년 10월 중에 單科大學別로 發表大會를 갖게 하여 발표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한 論文을 施賞하고 대외 學術論文 發表大會에 참가하도록 추천하며 飛獅 論集에 掲載하여 전교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읽도록 권장한다.

### Ⅳ. 年度別 論文提出現況 및 大會參加 入賞 現況

年度別 論文提出 現況 및 대회 참가 入賞 現況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年度別 論文提出 現況

연도	분야									계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농·수·해양	새마을	의·치·약학	예술	계	
1977년	9	6	1	2				2	20	
1978년	13	6		2				5	26	
1979년	16	3	2	2				6	29	
1980년	25	15	2	2	1	2		4	51	
1981년	29	17	3	7		1		3	60	
1982년	26	21	1	5				7	60	
1983년	16	16	3	15		1	2	6	59	
1984년	24	15	4	11		1	2	5	62	
계	158	99	16	46	1	5	4	38	367	

### Ⅴ. 學術論文制度의 문제 및 改善點

學術論文 制度의 實施 이후 많은 학생들이 申請에 참여하여 매년 學校當局에서 예상한 편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學術論文에 대한 關心度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학생 학술 논문제도가 학생들의 勉學雰圍氣 造成에 기여한 비중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매년 申請者 數가 증가하는 데 비해 學校 當局에서는 研究費 支給에 대한 豫算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論文審議會에서는 신청된 논문 중에서 많은 研究對象 論文을 탈락시켜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放學期間을 통하여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이용하여 專攻分野 지도교수가 資料收集이나 研究發表 및 會議 참석 관제로 海外에 여행하는 경우가 있어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期間內에 論文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優秀論文이 對外 學術發表大會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論文作成 計劃을 수립할 때 指導教授의 세밀한 지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全國 學術論文 發表會에서 最優秀賞 및 優秀賞에 입상한 학생에게는 獎學 惠擇을 入賞論文 指導教授에게는 학생 學術指導實績을 認定해 주는 制度의인 뒷받침이 있다면 校內 學術活動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 믿는다. \*

<표 2> 全國學術大會 參加 入賞現況

연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농·수·해양			새마을			의·치·약학			예술			수
	최우수	우수	장	최우수	우수	장	최우수	우수	장	최우수	우수	장	최우수	우수	장	최우수	우수	장	최우수	우수	장	최우수	우수	장	
1977년			1			1						1													3
1978년			2			1						1													4
1979년		1		1		1					1														5
1980년		2	1		2						1		1												7
1981년	1	1	3		3					1			1												10
1982년		1	2			2		1			1							1	1						9
1983년			3		1	7			2		1						1		1						16
1984년																				2					2
계	1	5	12	1	6	12		1	4		7			1			2	1	3						56